

벤투 감독 “케이로스와의 사제대결 기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이 콜롬비아와 A매치 평가전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경기도 파주 NFC(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파울루 벤투(50·포르투갈) 축구대표팀 감독이 올해 2월 새롭게 콜롬비아 지휘봉을 잡은 카를로스 케이로스(66·포르투갈) 감독과의 사제 대결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벤투호는 26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2위의 강호 콜롬비아와 A매치 평가전을 갖는다. 사령탑간 사제 대결이 관심을 모은다. 벤투 감독이 1992년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데뷔전을 가졌을 당시 감독이 케이로스였다. 벤투 감독은 대결을 하루 앞둔 25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케이로스 감독과는 좋은 기억들이 대부분이다.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으로 있을 때, 내가 대표팀에서 데뷔할 수 있었고, 이후 코치로서 여러 차례 좋은 대결을 한 기억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989년, 1991년 청소년대회에서 포르투갈을 2회 연속

정상으로 이끄는 등 포르투갈 축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했다”며 “이후 아시아 대륙에서 8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고, 지금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이런 것을 보면 존중받아 마땅한 지도자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내일 경기는 좋은 대결,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좋은 기억이 많은 벤투 감독과 달리 한국 축구에 있어 케이로스 감독은 저승사자 같은 존재다. 2011년 4월 압신 고트비 감독의 뒤를 이어 이란 사령탑에 오른 케이로스 체제에서 한국은 8년 동안 이란을 이기지 못했다. 다섯 번 싸워 1무4패를 기록했다. 골도 기록하지 못했다. 논란도 있었다. 케이로스 감독은 2013년 6월 울산에서 열린 2014 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에서 한국에 1-0으로 승리한 후, 최강의 당

1992년 포르투갈 대표팀 데뷔 당시 감독 케이로스 “좋은 기억들이 대부분... 존중받아 마땅한 지도자” 오늘 케이로스 감독 체제 콜롬비아와 A매치 평가전

시 감독을 비롯한 한국 코칭스태프를 향해 “주먹감자를 날렸다. 이에 대해 벤투 감독은 “케이로스 감독이 이란 감독으로 있는 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동안 양국이 계속해서 월드컵에 나갔다는 부분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과거(주먹감자 사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일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축구를 하다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순간을 끝으로 덮어두고 내일은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팀을 열심히 응원해주고, 좋은 플레이를 함께 즐겼으면 한다. 어려움을 느낄 때는 힘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고 보냈다. 22일 브라질리아에서 선발 출전했던 공격수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과 골키퍼 김승규(비셀 고베)는 각각 왼쪽 무릎 부종과 장염 증세로 전열에서 이탈했다. 지동원은 조기 귀국할 예정이고 김승규는 출전이 사실상 어렵다. 벤투 감독은 “부상이 심각한 게 아니라는 점은 다행이다”며 “부상 선수들이 나왔다고 해서 내일 선발 명단과 옵션들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크게 달라진 부분도 딱히 정해진 것도 없다. 내일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선수

들의 출전 시간을 가져갈 것이다”며 “(이강인, 백승호 등) 어린 선수를 교체로 넣을지, 베테랑을 넣을지도 계획한 건 하나도 없다. 전술적인 부분의 진행 상황을 보고 교체를 결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벤투호는 브라질리아에서 슈팅을 21개나 기록할 만큼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였다. 포메이션도 4-1-3-2로 변화를 줬다. 벤투 감독은 “기본 베이스는 브라질리아처럼 하겠지만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다. 콜롬비아는 강팀이다. 개인과 조직력이 모두 강하다”며 “우리의 틀에서 상대가 강해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세부 전략은 다르게 가져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콜롬비아는 22일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1-0으로 승리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바이에른 뮌헨), 라다멜 팔카오(AS모나코)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즐비하다. 벤투 감독은 “콜롬비아는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출중하고 국제 무대에서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이 포진했다. 조직력이 잘 갖춰진 틀 안에서 로드리게스, 팔카오 등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많다”면서도 “내일 우리가 경기를 못한다고 해서 이게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내일 충분히 대응해서 좋은 경기를 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황의조 “홍민이와 투톱? 좋은 장면 위해 잘 준비”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김바오사카)가 동갑내기 손흥민(토트넘)과의 콜롬비아전 투톱 가능성에 대해 “만일 나신다면 좋은 장면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24일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대표팀 훈련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26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콜롬비아와 격돌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지난 22일 브라질리아에서 손흥민을 기존의 왼쪽 측면이 아닌 최전방에 배치했다. 스코어는 1-0에 그쳤지만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콜롬비아전에서도 해당 포메이션이 유지된다면 손흥민의 파트너는 황의조가 될 전망이다. 브라질리아 선발 투톱이었던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은 왼쪽 무릎이 좋지 않아 이날 정상 훈련에 불참했다. 콜롬비아전 출격은 어렵다. 투톱의 남은 한 자리를 둘러싼 지동원과의 경쟁에도 긍정적인 입

장을 드러냈다. “동원이형도 나도 서로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갖지 못한 부분을 동원이형이 갖고 있다”면서 “서로 배우고 있다. 좋은 경쟁이 될 것”이라고 반색했다. 황의조는 브라질리아에서 교체로 투입됐으나 골맛을 보는데 실패했다. 황의조 뿐 아니라 대다수 공격수들이 결정력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황의조는 “찬스가 났을 때 집중해서 침착하게 마무리한다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생각한다고 전했다. 콜롬비아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2위의 강호다. 하메스 로드리게스(바이에른 뮌헨), 라다멜 팔카오(AS모나코)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번 원정에 포함됐다. 황의조는 “콜롬비아는 모두가 다 좋은 선수들이다. 내에게는 큰 공부가 될 것이다. 경쟁하면서 나 자신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된다”면서 “흠에서 하는 경기는 꼭 승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선수들이 갖고 있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강정호, 시범경기 홈런왕...그래도 와일드카드?

‘잘 알려지지 않은 핵심 선수’ 분류
강정호(32·피츠버그 파이리츠)가 2년 공백에도 불구하고 시범경기에서 맹타를 휘두르면서 현지 주목 대상으로 떠올랐다. 강정호는 25일(한국시간)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2019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에서 7호 홈런을 쏘아올려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홈런

부문 단독선수로 올라섰다. 시범경기 15경기에 출전한 강정호는 타율은 0.238(42타수 10안타)로 높지 않지만, 10개의 안타 중 7개를 홈런으로 장식하며 장타력을 과시하고 있다. 수비도 큰 문제없이 소화하자 피츠버그는 강정호를 개막전 선발 3루수로 낙점했다. MLB닷컴은 24일 메이저리그 30

개 구단의 잘 알려지지 않은 핵심 선수를 선정하면서 피츠버그 선수로 강정호를 꼽았다. MLB닷컴은 “강정호가 2016년 이후 메이저리그 경기에 나선 것은 단 세 차례지만, 피츠버그 구단은 그가 2015~2016년 보여준 파워의 잠재력과 올해 시범경기에서 보인 몸 상태를 보고 믿음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피츠버그 구단은 아직 강정호



를 와일드카드로 여기고 있다. 강정호가 2년 간의 공백 탓에 고전할 수도 있고, 불확실성을 지워낼 수도 있다”면서도 강정호가 올 시즌을 앞두고 최고의 몸 상태를 자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연경 교체 투입 엑자시바시, 터키컵 우승

김연경이 이끄는 엑자시바시가 페네르바체를 제압하고 터키컵을 들어 올렸다. 엑자시바시는 25일(한국시간) 터키 아타튀르크 경기장에서 열린 터키여자배구컵 결승전에서 페네르바체에 3-1(23-25 25-17 25-22 25-20)로 역전승을 거뒀다. 김연경은 2017년 페네르바체 시절 우승 후 2년 만에 다시 우승컵

을 차지하는 데 기여했다. 1세트에서 벤치를 지킨 김연경은 2세트 중반에 출전했다. 김연경은 서브와 강력한 공격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면서 역전승에 기여했다. 이날 김연경은 16점을 올리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보스코비치(23점)에 이어 팀내 득점 2위다. 뉴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창세미골, 회현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